

朝鮮時代 治隱 吉再에 대한 인식과 위상*

이 경 동**

- I. 머리말
- II. 조선전기 길재에 대한 인식과 전개
 - 1. 忠節者隱者로서의 인식
 - 2. 東方 道統 傳授者로서의 인식
- III. 조선후기 길재 현상과 인식 변화
 - 1. 길재 관련 지역의 현상 사업 추진
 - 2. 出處 논란과 위상 강화
 - 3. 길재에 대한 인식과 해석의 분화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조선시대 야은 길재에 대한 인식과 위상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대적 의미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선초기 길재는 고려에 대한 忠節을 지킨 인물로서 평가되었다. 길재는 정몽주와 함께 충절과 관련한 상징적인 인물로 표상되었다. 16세기를 전후로 사림에 의해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이어지는 동방 도통의 계보가 확정되면서 길재는 충절자뿐만 아니라 도학자로서의 위상을

* 이 논문은 2022년 11월 29일 구미성리학역사관이 주최하고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야은 길재의 재인식>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geistlkd@hanmail.net

갖출 수 있었다. 이는 조광조로 대표되는 士林派의 정치적·학문적 정당성을 갖추어가는 과정 속에서 전개되었으며, 길재는 정몽주와 조선시대 학자들을 잇는 매개 역할을 하였다. 조선후기 길재에 대한 인식은 관련 지역의 현창, 행적에 대한 평가, 국가 및 민간 차원에서의 해석의 분화 등으로 요약된다. 善山, 仁同, 錦山 등 길재와 관련된 지역을 중심으로 書院이나 祠宇가 건립되면서 길재를 현창하는 활동들이 확인된다. 길재를 배향하는 金鳥書院, 吳山書院, 淸風祠 등이 이 지역에 건립되었으며, 길재의 행적을 정리하는 문집 편찬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길재가 고려말 관료로 활동했었고, 이후 조선에서는 출사를 거부했던 출처에 대한 논란도 발생했다. 이에 대한 논란은 길재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비판에 대한 재비판 과정에서 길재의 위상은 한층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1738년 길재에게 ‘忠節’이라는 시호가 내려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충절과 관련한 그의 위상이 공고화되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충절로 국한된 평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공존하는 등 길재에 대한 평가가 다채롭게 전개되어 갔다.

◆ 주제어

吉再, 忠節, 道統, 善山, 仁同, 錦山, 士林

I. 머리말

과거 史實에 대한 복원과 재해석은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현상의 하나이다. 그 결과 역사적 사실은 학술적인 고증 작업을 거치기도 했지만, 과거를 해석하는 주체의 의도에 따라 필요한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과거 혹은 역사가 지속적인 변화에 대처하는 유용한 분석 도구이자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는 동력으로 기능한다는 평가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¹⁾ 과거의 대상 중에서도 평가의 복잡성과 구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물이다. 인물은 시대의 문제의식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거쳐왔다. 특정 시기에 확립된 인물에 대한 평가가 후대에 이르러 변화되는 경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물에 대한 인식과 평가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회자된 대표적인 인물의 하나로 治隱 吉再(1353~1419)를 들 수 있다. 길재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교체 과정에서 고려말 조정에서 활동했던 관료로서 출사를 사양한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선죽교에서 사망한 圃隱 鄭夢周(1337~1392)와 함께 고려왕조에 대한 절의를 상징하는 인물로 규정되었다.

길재는 동방 도통의 전수자로 이해되기도 한다. 정몽주에서부터 시작하여 길재를 거쳐 김숙자, 김종직 등 조선시대 도학자들로 이어지는 방식은 동방 도통 계보의 기본적인 구조를 차지한다. 또한 그 계보에서 길재는 정몽주의 제자일 뿐만아니라, 김숙자의 스승으로서 고려와 조선 사이의 도학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인물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많은 지식인들이 길재의 묘소나 배향 서원을 방문했던 것은 길재를 추념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충절과 도통을 계승하고자 했던 당대의 인식들이 반영되어 있었다.

길재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는 朝野를 막론하고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대체로 절의 혹은 도통과 관련된 사항에서 찾아볼

1) Hobsbawm·Eric J(강성호 옮김), 「과거의 의미」, 『역사론』, 민음사, 2002, 31~52쪽.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시각들은 길재에 대한 당대인들의 다양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殷나라의 충신이었던 ‘伯夷’·‘叔弟’, 漢武帝의 親友였던 ‘嚴光’, 晉나라의 隱者인 ‘陶潛’ 등과 비교하며 길재는 조선시대 수많은 지식인들을 통해 이해되었다.

조선시대 길재에 대한 인식과 위상과 관련해서는 일찍부터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우선 길재의 인식의 시기별 차이를 개략적으로 구분한 분석이 이루어졌다.²⁾ 이를 통해 길재에 대한 시기적 인식 변화가 확인되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분석들이 진행되었다. 조선초기 길재와 관련된 추송사업에 대한 평가,³⁾ 도학자로서 출처의리 등이 분석되었다.⁴⁾ 이와 함께 절의과 도통을 중심으로 길재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 과정을 구조적으로 밝히고, 조선초기 사림과를 중심으로 진행된 『小學』 학습 경향에 대한 길재와의 관련성이 주목되었다.⁵⁾ 길재 절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한 분석과⁶⁾ 『治隱集』에 수록된 찬영시에 대한 분석,⁷⁾ 길재와 관련된 열녀 藥哥에 대한 설화⁸⁾ 등도 다루어졌다.

길재의 현창과 관련한 배향 서원에 대한 연구도 주목된다. 영남 지역의 대표 서원으로서 길재를 주향으로 배향하고 있는 오산서원,⁹⁾ 금오서

-
- 2) 李泰鎭, 「吉再 忠節 追崇의 時代的 變遷」, 『韓國思想史學』 4-5, 한국사상사학회, 1993.
 - 3) 김훈식, 「15세기 조가의 길재 추송과 인식」, 『민족문화논총』 1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 심영환, 「조선초 길재의 추증과 추증첩의 복원」, 『포은학연구』 7, 포은학회, 2011. ; 조남욱, 「조선초 초기 정몽주 길재 표창과 그 의의」, 『유교사상문화연구』 49, 한국유교학회, 2012.
 - 4) 김훈식, 「조선시대의 길재 추송과 出處義理」, 『嶺南學』 2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
 - 5) 김용현, 「야은 길재의 두 가지 표상 : 절의의 실천과 도통의 전승」, 『한국학논집』 6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6.
 - 6) 안장리, 「야은 길재에 대한 추송과 비판에 대한 연구」, 『포은학연구』 18, 포은학회, 2016.
 - 7) 남재철, 「야은 길재에 대한 역대 찬영시 검토1」, 『대동한문학』 42, 대동한문학회, 2015. ; 남재철, 「야은 길재에 대한 역대 찬영시 검토2」, 『인문과학논총』 37-2,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 8) 김훈식, 「조선 후기의 吉再 追崇과 백성 교화-烈女 藥哥 이야기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2, 부산경남사학회, 2014.
 - 9) 이수환, 「星州 迎鳳書院 연구」, 『역사교육논집』 54, 한국역사교육학회, 2015. ; 임근

원10)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각 서원의 건립 경위와 더불어 길재가 도통의 전수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원이 운영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를 통해 영남지역의 주요 서원으로 기능한 길재 배향 서원의 위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길재에 대한 인식이나 위상의 변천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길재가 시대별로 인식되고 규정되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에 대한 역사성을 도출하는 것은 비단 길재라는 인물 자체 뿐만 아니라 시대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길재 인식과 위상에 대한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시기적 변화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실록』 등의 연대기 사료와 『治隱集』을 비롯한 문집 자료, 관련 고문헌 등을 참고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길재 인식에 대한 시기적 층차를 보다 심도있게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조선전기 길재에 대한 인식과 전개

1. 忠節者·隱者로서의 인식

한국사에서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교체는 시대사적인 의미를 갖는

실, 「柳雲龍의 『吳山志』 편찬 의도」, 『韓國書院學報』 2, 한국서원학회, 2013. ; 임근실, 「16세기 善山지역 서원 건립에 나타나는 道統意識-金烏書院과 吳山書院을 중심으로」, 『退溪學報』 137, 퇴계학연구원, 2015.

- 10) 이병훈, 「조선후기 선산지역 재지사족의 동향과 원사 건립 추이」, 『민족문화논총』 7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9. ; 류영수, 「금오서원 창건과 구미 정신」, 『민족문화논총』 7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 이병훈, 「조선후기 선산 금오서원의 건립과 운영」, 『민족문화논총』 7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 정수환, 「조선후기 선산일대 서원에 대한 기록과 지식 그리고 일상지식」, 『민족문화논총』 7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다. 우선 체제 교학이 불교에서 유교, 성리학으로 교체되었다는 점과 새로운 국가건설을 통해 고려말 해결되지 못했던 다양한 현안들이 개혁되었다는 점이다.¹¹⁾ 과거제의 전면 실시, 과전법과 공법의 시행, 사병혁파 등을 포함한 개혁적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왕조교체라는 시대적 변화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여말선초의 현실 속에서 지식인들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다. 크게 보면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킬 것인가와 새롭게 건국된 조선에서 개혁적인 정책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절의과와 개혁파로 나뉘어진 지식인 내부에서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 활동하였다. 전자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인물은 정몽주와 길재였으며, 후자는 鄭道傳(1342~1398)이었다. 정몽주는 고려에 대한 절의를 고수하다가 太宗 李芳遠(1367~1422)에 의해 척살당하였고, 길재는 不事二君의 관점에서 조선으로의 출사를 사양하였다. 조선 건국 이후 출사를 사양했던 유일한 인물로 길재를 언급한 사실을 미루어 유추해 보면,¹²⁾ 길재의 출사 사양은 고려의 종언과 새 왕조 조선의 건국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선초기 길재가 생존했을 당시의 평가는 다음의 권근의 견해를 통해 드러난다.

전 注書 吉再는 苦節이 있는 선비입니다. 전하께서 東宮에 계실 때에 예전 交誼를 잊지 않으시고, 또 독실한 효도를 아름답게 여기시어, 上王께 사되어 벼슬을 제수하셨는데, 길재가 일찍이 僞朝에 벼슬하였다고 하여 스스로 오늘에 신하 노릇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그가 시골로 돌아갈 것을 들어주시어서 그 뜻을 이루게 하였으니, 길재의 지키는 바가 비록 中道에 지나고, 바른 것을 잃었다고는 하지마는, 革命한 뒤에 오히려 예전 임금을 위하여 절개를 지키어 능히 爵祿을 사양한 자는 오직 이 한 사람뿐입니다. 어찌 높은 선비[高士]가 아니겠습니까.¹³⁾

11) 민현구,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국사시민강좌』 40, 일조각, 2007, 134~140쪽.

12) 『太宗實錄』 卷1, 1년 1월 14일 甲戌.

13) 『太宗實錄』 卷1, 1년 1월 14일 甲戌.

길재가 표면적으로 출사를 거부한 이유는 고려에 대한 절개를 지키고 자[守節]하는 것이었다. 권근은 그것이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의 상황에서 中道나 正道를 잃은 것이기는 하지만, 고려에 대한 절개를 지키고 작록을 사양하였다는 견해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의 입장에서 수도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와 관련하여 高士라고 지칭한 권근의 견해를 통해 당시 길재에 대한 평가를 엿볼 수 있다.

권근의 평가는 길재에 대한 조정 내에서의 보편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길재에 대해 ‘經義에 밝고 행실을 닦은 인물’,¹⁴⁾ 史論에서 ‘절의를 지키고 작록을 헌신짝같이 여겨 草野에서 몸을 미치려 하였으니 충렬한 선비’¹⁵⁾와 같은 언급 등이 확인된다. 이러한 경향에서 길재는 고려에서 벼슬하였으나 왕조 교체에 따라 벼슬을 사양한 충절·절의를 상징하는 인물로 인식되어 갔다.

길재에 대한 평가는 그의 사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길재는 通政大夫司諫院左司諫大夫知製敎兼春秋館編修官으로 贈職되었으며,¹⁶⁾ 아내에게는 復戶의 특전을 내려주었다.¹⁷⁾ 후손에 대한 錄用도 이루어져서 아들인 吉師純에게는 5품직을 제수했으며¹⁸⁾ 손자인 吉仁種에게는 20살이 차기를 기다려 관직을 제수하도록 하였다.¹⁹⁾ 조선에 출사하지 않았던 길재에게 증직 등의 특전을 내려준다는 것 자체는 이례적인 조치로 보인다.

길재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이 조선초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시대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역성혁명으로 이룩한 조선이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충절을 강조하고 이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었다. 1401년(태종 1) 태종이 본인이 직접 살해한 정몽주를 領議政府事로 증직한 것은 정몽주와 같은 충신이 조선사회에서 필요했다는 점을 보여준

14) 『定宗實錄』 卷5, 2년 7월 2일 乙丑.

15) 『定宗實錄』 卷5, 2년 7월 2일 乙丑.

16) 『世宗實錄』 卷34, 8년 12월 3일 壬戌.

17) 『世宗實錄』 卷14, 3년 12월 22일 辛亥.

18) 『世宗實錄』 卷2, 즉위년 12월 29일 甲辰. ; 『世宗實錄』 卷89, 22년 6월 17일 丁亥.

19) 『文宗實錄』 卷5, 즉위년 12월 8일 戊寅.

다.²⁰⁾ 아울러 세종대에는 성리학적 지배질서에 입각한 체제 교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점이었다.²¹⁾ 따라서 국가 및 군주에게 충성하는 행위를 권장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정몽주와 길재가 주목되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三綱行實圖』의 <忠臣圖>이다.²²⁾ 세종은 정몽주와 함께 길재를 <충신도> 내에 삽입하였다.²³⁾ 국가에서 사회교화정책의 하나로 심혈을 기울였던 『삼강행실도』에 길재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길재의 출사거부와 그 이후에 행적이 당대인의 관점에서 충절의 표상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정몽주와 함께 길재는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켰다는 점에서 이들을 추승하고 증직하는 행위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조선으로의 새로운 왕조 개창을 위해서 이들은 제거 혹은 배제되어야 하는 인물이었다. 반면, 조선으로의 개창 이후에는 이들과 같은 인물들을 현창하는 것이 충절을 강조하는 방법이었다. 결과적으로 조선 개국 이후에는 후자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몽주는 죽음을 통해 자신의 충절을 지킨 인물로, 길재는 출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충절을 지킨 인물로 표상화되었다.

충절자로서 길재에 대한 인식은 隱者로도 규정되기도 하였다. 길재는 쯤나라 시기의 대표적 은자인 陶潛과 비교되었다.²⁴⁾ 은자로서의 규정은

20) 『太宗實錄』 卷2, 1년 11월 7일 辛卯.

21) 세종대 진행된 교화정책으로는 유교교화를 위한 경전과 언해서의 간행, 향교 교관 파견, 친영례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권연웅, 「世宗」, 『한국사시민강좌』 13, 일조각, 1993, 51~54쪽 ; 황미숙, 「조선 초기 婚姻의례 변화에 대한 고찰-세종대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40,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4, 29~33쪽 ; 도현철, 「훈민정음의 창제와 유교 교화의 확대」, 『東方學志』 19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1, 99~107쪽 ; 신동훈, 「세종대 향교 교도 파견과 교관직 확대」, 『朝鮮時代史學報』 102, 조선시대사학회, 2022, 253~256쪽).

22) 金勳植, 「『三綱行實圖』 보급의 社會史的 高찰」, 『震檀學報』 85, 부산경남사학회, 1998, 253~256쪽.

23) 『世宗實錄』 卷54, 13년 11월 11일 壬申.

24) 『世宗實錄』 卷50, 12년 11월 23일 庚申.

출사 거부와 연결되며 충절·절의자와 유사성을 보이면서도 낙향 후 학문과 후학 양성에 집중했던 길재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고려에서 관료생활을 하였으나, 조선 건국 이후에는 국정운영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점에서 은자로서 규정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충절자와 은자로서의 모습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의 대표적 인 사례로 權遇가 지은 <吉注書畫像贊>에서 확인할 수 있다.

噫周德之如天	아, 주나라의 덕이 하늘같아서
不問西山之採薇	서산에서 고사리 캐는 것을 문책하지 않았으며
暨漢祖之重興	漢朝의 중흥함에 미처서도
亦放羊裘於釣磯	또한 낚시질하는 물가에서 羊裘를 용서하였는데
迄今天餘歲	지금껏 천여 년 동안
信此心此理之無俵	이 마음과 이 이치의 어김 없음을 믿겠다 ²⁵⁾

권우는 길재를 백이·숙제와 엄광과 비교하였다. 백이·숙제는 은나라의 절의를 지키고자 西山에서 고사리를 캐며 생애를 마감하였으며, 엄광은 광무제와 親友였으나 벼슬을 사양하고 은거한 인물이었다. 권우의 시각은 길재에 대해 절의자와 은자 두 가지 관점이 결합된 형태를 보여준다. 고려의 충절을 지킨 인물이자, 太學에서 동문수학했던 태종과의 친분에도 불구하고 벼슬을 사양한 것이 바로 백이·숙제와 엄광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조선전기 지식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자리잡아 갔다. 『治隱先生言行拾遺』 卷下 <讚詠諸詩>에 수록된 조선전기의 시문들에서 충절자·은자로서 규정된 시각들을 살펴볼 수 있다.

길재는 충절자와 은자 두 가지 면모가 결합되어갔다. 고려의 충성을 지킨 충절자이자, 태종과 태학에서 동문수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신양명을 바라지 않고 향촌에서 은거하며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던 은자로 이해되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충절에 대한 이미지가 확산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은자로서의 시각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토대

25) 『東文選』 卷51, 贊, <吉注書畫像贊(再)>.

로 길재에 대한 인식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정립되어갔다.

2. 東方 道統 傳授者로서의 인식

조선초 충절과 은자로 정립된 길재에 대한 인식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갔다. 특히 정몽주가 점차 위상이 강화되며, 함께 고려말 절의를 상징하는 인물로서의 위상을 획득해갔다. 고려의 ‘節義之士’로서 정몽주와 함께 길재가 규정되었으며,²⁶⁾ 漢唐 이래로 보기 드문 절의의 인물로 두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였다.²⁷⁾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초기부터 절의의 상징으로서 정몽주와 길재가 정립되어 갔음을 보여준다.

충절에 대한 길재에 대한 인식과 함께 16세기부터는 길재에 대한 이전과는 다른 시각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바로 道統의 관점에서 士林派를 중심으로 길재를 동방 도학의 계보를 잇는 인물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은 다음 趙光祖(1482~1520)의 견해에서 확인할 수 있다.

金宏弼 같은 사람은 비록 당시에 벼슬은 하지 못하였으나, 지금의 선비들이 그의 풍모를 듣고 선행을 하려는 자가 또한 많으니, 이는 모두 핑필의 힘입니다. 그 士習의 원기가 그를 힘입어 이같이 보존되었습니다. 핑필은 비록 조정에 나서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그 영향을 끼치는데, 더구나 당시에 포부를 펴게 하였다면 그 공효를 누가 비길 수 있겠습니까? ... 김종직은 처음 吉再에게 수업하였으니, 길재는 곧 鄭夢周의 문인입니다. 그러니 종직이 傳業한 淵源은 실로 그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조금이라도 선행을 할 줄 아는 자는 그의 문하에서 수업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선한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므로 자연 道가 같아져 서로 추천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 28)

조광조는 정몽주-길재-김종직-김핑필로 이어지는 동방 도학의 계보

26) 『成宗實錄』 卷93, 9년 6월 3일 癸巳.

27) 『成宗實錄』 卷202, 18년 4월 7일 丙子.

28) 『中宗實錄』 卷32, 13년 4월 28일 丁酉.

를 설명하며 학문이 전수되는 연원을 논증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바로 정몽주와 김굉필까지의 학문적 계보에서 길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길재는 김종직의 부친인 김숙자와 사승관계에 있었다.²⁹⁾ 길재는 정몽주의 高弟이자, 김숙자의 스승으로서 정몽주와 김숙자를 연결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 길재는 도통의 계보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사회에서 자체적인 도통의 계보화 작업이 사림과가 형성되는 16세기에 이르러 활발하게 전개된다는 점은 사상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통적으로 도통의 전수는 堯-舜-禹-湯의 군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사림은 도통을 군주가 아닌 사류 그중에서도 士林에 속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계보화하였다. 이러한 점은 사상사적 측면에서도 주목될 필요가 있는데, 內聖外王으로 상징되는 군주중심적 도통에서 군주가 아닌 士類도 도통의 전승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군주가 아닌 사류로의 도통 전승은 송대 理學 전통에서 출발한 것으로서,³⁰⁾ 조선사회에서 사류를 중심으로 도통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점차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어갔던 사상적 발전과정을 동시에 엿볼 수 있다.³¹⁾

조광조에 의해서 제창된 동방 도통의 계보는 이후시기에 더욱 정밀하게 구성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성을 획득해 나가는 경향을 보인다. 도통과 관련된 내용들은 기묘사화 이후 조광조 및 기묘사림의 신원을 요청하는 언급들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며, 길재는 도통의 계보 속에

29) 『治隱先生言行拾遺』 卷中, 附錄, <彝尊錄語(佔畢齋金宗直)>, “鄉先生吉公再, 以嘗事高麗, 辭祿於本朝, 累徵不起, 卜築金烏山下, 教授子弟, 童叟雲集, 其教自灑掃應對之節, 以至蹈舞詠歌, 不使之躐等(公亦往受業焉, 公即司藝金俶滋, 佔異公父也).”

30) 余英時(이원석 옮김), 『주희의 역사세계』(상), 글항아리, 2015, 45~80쪽 참조.

31) 이러한 점은 중종대 정몽주의 문묘종사 논의 과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도통의 계승자가 국가적으로 공인되어 문묘에 종사된 것으로서 도통론이 조선 사회에 정착되어가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김영두, 「中宗代 文廟從祀 論議와 朝鮮 道統의 形成」, 『史學研究』 85, 한국사학회, 2007, 59~71쪽.; 이경동, 「16세기 도통론의 전개와 포은 정몽주의 위상」, 『포은학연구』 17, 포은학회, 2016, 9~16쪽).

반드시 포함되는 존재였다.

- (a) 조광조는 평소에 뜻과 행실에 있어 숭상하는 바가 있었고 학업이 크게 이루어졌었는데, 신들은 진실로 흘러온 淵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君子인 사람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그처럼 되었겠습니까. 우리 도[吾道]가 동방으로 온 지 오래인데 또한 傳承이 있었습니다. 대개 조광조는 金宏弼에게서 받고, 김굉필은 김종직에게서 받고, 김종직은 前朝의 신하 吉再에게서 받고, 길재는 정몽주에게서 받았습니다. 濂洛의 흐름을 거슬러 보고 洙泗의 근원을 탐구해 보고서, 그옥이 顏淵과 閔子騫이 배우던 바와 伊尹의 뜻하던 바를 자기 자신이 하기로 한 사람이니 어찌 하겠습니까? 진실로 정몽주 이후에 이 사람 하나뿐입니다.³²⁾
- (b) 조광조의 학문이 바른 것은 전해는 데에 유래가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개연히 道를 찾는 뜻이 있어서 金宏弼에게서 受業하였습니다. 김굉필은 金宗直에게서 수업하고 김종직의 학문은 그 아버지 司藝 叔滋에게서 전해졌고 숙자의 학문은 고려의 신하 吉再에게서 전해졌고 길재의 학문은 鄭夢周에게서 전해졌는데 정몽주의 학문은 실로 우리 동방의 시조이니, 그 학문의 淵源이 이러합니다.³³⁾
- (c) 동방의 학문이 서로 전해진 차서로 말하면, 정몽주가 東方理學의 祖로서 吉再가 정몽주에게서 배우고 金叔滋는 길재에게서 배우고 金宗直은 김숙자에게서 배우고 金宏弼은 김종직에게 배우고 趙光祖는 김굉필에게 배웠으니 본래 源流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儒士들이 성현의 학문을 하고자 하게 되었으니 위에서 능히 교화를 주장하시면 지금이야말로 復古할 수 있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학문에 힘쓰는 사람들이 비록 많지 않은 듯하나 지금 의논을 들어보면 학문을 아는 長者들이 기묘년에 비해 많다고들 합니다."³⁴⁾

조광조를 비롯한 기묘사람의 신원 과정에서 도통의 계보는 점차 확고하게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은 중종대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인종~선조대에 이르러 점차 체계화되고 이어서 正論으로 자리잡아감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으로 이어지는 계보이다. 東方理學의 祖宗으로서 정몽주를

32) 『中宗實錄』 卷103, 39년 5월 29일 丙寅.

33) 『仁宗實錄』 卷1, 1년 3월 13일 乙亥.

34) 『宣祖實錄』 卷3, 2년 윤6월 7일 己酉.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조광조까지 이어지는 도통을 확정하고 있다.

도방 도통의 계보가 정리되면서 정몽주의 위상도 절의·은자뿐만 아니라 도통의 전수자로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가 차원의 현창 활동도 확인되는데 임진왜란 이후 진행된 치제에 흥문관원이 제관으로 과견되었으며,³⁵⁾ 陵墓의 치제 대상으로 정몽주, 김굉필, 조광조 등과 함께 포함되었다.³⁶⁾ 이러한 점은 길재가 충절과 함께 도통의 계보에 포함된 인물로서 규정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³⁷⁾

도통의 계보 내에 길재가 포함됨과 동시에 忠節·隱者로 규정되었던 길재에 대한 인식은 도학적인 부분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도학의 계보에 포함된 인물들과 대등한 관점에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일례로 李滉(1502~1571)은 1549년(명종 4) 경상감사였던 沈通源(1499~?)에게 소수서원의 사액을 요청하는 편지에서 先正의 자취가 남고 향기가 뿌려져 있는 곳, 예를 들어 崔冲·禹倬·鄭夢周·吉再·金宗直·金宏弼 등이 살던 곳에 모두 서원을 건립한다면 교화가 흥기될 것이라고 하며 서원의 건립과 사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³⁸⁾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최충을 비롯하여 동시에 언급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도학적 계보에서 포함되는 인물들이기 때문이었다. 이황은 이러한 점에서 길재를 도학자의 하나로 범주화시키고 있음이 확인된다. 柳希春(1513~1577)은 길재에 대해 “자질이 아름답고 학문은 순수하며 義를 좋아하고 禮를 숭상하였다. 그리고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스승을 높여서 臣子로서

35) 『宣祖實錄』 卷163, 36년 6월 5일 庚寅.

36) 『宣祖實錄』 卷166, 36년 9월 9일 壬戌.

37) 충절과 도통은 이분법적이 아니라 상보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충절론과 도학론은 길재에 대해 어떠한 점에 중심을 두고 평가할 것인가에 따른 차이로 이해된다. 실제로 1577년(선조 10) 길재를 致祭할지에 대한 논의를 담은 獻議에서 신료들이 忠節·不事二君·人臣之表 등으로 평가하는 사례에서 충절과 도학 모두 길재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에 주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治隱先生言行拾遺』 卷中, <賜祭議>).

38) 『退溪集』 卷9, 書, <上沈方伯(通源○己酉)>, “苟有先正遺塵播馥之地, 若崔冲禹倬鄭夢周吉再金宗直金宏弼之居, 莫不立書院, 或出於朝命, 或作於私建, 以爲藏修之所, 以賁揚聖朝右文之化, 明時樂育之盛矣.”

在三之節을 극진히 하였다. 이미 이로써 몸을 마치고 또 이로써 남을 가르친 것은 비록 옛날의 醇儒라도 이보다 더 나올 수 없다”고 하면서 충절과 더불어 길재가 가진 도학적인 면모를 부각하였다.³⁹⁾ 이는 충절·은자로서의 인식과 더불어 도통의 전수자로서 在三之節을 갖춘 인물이자 醇儒의 표상으로 길재의 위상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16세기 이후로 길재에 대한 인식은 절의와 더불어 도통적 관점으로 확대되어 갔다. 길재의 위상은 절의와 도통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복합적으로 전개되어 갔으며, 이후에도 두 관점은 길재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Ⅲ. 조선후기 길재 현창과 인식 변화

1. 길재 관련 지역의 현창 사업 추진

절의와 도학과 관련한 길재의 위상이 정립되면서 길재가 거주했고 묘소가 위치한 선산 및 금오산 일대는 점차적으로 길재와 동일시하는 경향들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선산지역을 지나면서 길재의 묘소나 사당에 참배를 하거나, 금오산을 지나면서 길재의 절의 및 도통을 회상하며 詩作하는 경우가 점차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冶隱先生言行拾遺』에는 조선초부터 17세기 초까지 금오산이나 선산을 방문한 인물들의 讚詠詩 약 60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당대인들이 길재 인식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⁴⁰⁾

39) 『靑莊館全書』卷69, 寒竹堂涉筆(下), <吉治隱>, “希春曰, 質美而學粹, 好義而崇禮, 孝於親, 忠於君, 隆於師, 盡臣子在三之節, 既以此終身, 又以此教人, 雖古之醇儒, 不是過也.”

40) 찬영시에 대한 분석은 남재철, 「야은 길재에 대한 역대 찬영시 검토1」, 『대동한문학』 42, 대동한문학회, 2015.; 남재철, 「야은 길재에 대한 역대 찬영시 검토2」, 『인문과학논총』 37-2,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참조.

선산과 금오산은 절이나 도통의 상징적인 지역으로서 점차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길재의 행적이 담겨있는 금오산을 백이·숙제가 은거했던 首陽山과 동일하게 인식하거나, 선산 지역에 흐르는 鳳水를 嚴光이 은거했던 七里灘과 비교하기도 하였다.⁴¹⁾ 점차적으로 길재의 행적과 관련된 곳은 충절과 도학에 연결되었다.

길재를 주향으로 하는 서원들이 16세기 후반부터 선산과 인동 일대에 건립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관념들은 더욱 공고해졌다. 가장 먼저 건립된 것은 金鳥書院이다. 1570년(선조 3) 길재가 말년에 근거한 금오산을 배경으로 건립되어 1575년에 사액되었다. 서원의 건립과정에서 主享者인 길재를 중심으로 金宗直, 鄭鵬, 朴英을 並享하였다. 길재를 주향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길재를 배향했다는 사실이 서원 건립 및 사액의 중요한 명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²⁾ 금오서원은 임진왜란 당시 전소되고 이후 재사액의 과정을 거쳤지만, 재사액 과정에서도 조정에서 큰 논란이 있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금오서원은 당대의 주요 서원의 하나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⁴³⁾

금오서원의 건립과 더불어 길재의 시문과 행적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후손 및 지역 사람들에 의해 1573년 『冶隱先生行錄』이 간행되었다.⁴⁴⁾ 서원의 건립과 문집의 간행이 같은 시기에 진행된다는 점은 서원건립과 문집간행이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서원 건립과 문집 간행의 추진은 조선전기 이래로 인식되고 평가되었던 길재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⁴⁵⁾

41) 『錦溪外集』 卷6, 詩, <過金鳥山有感>, “鳥山高似首陽山, 鳳水清於七里灘.”

42) 금오서원의 건립 경위에 대해서는 이병훈, 「조선후기 선산 금오서원의 건립과 운영」, 『민족문화논총』 7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50~55쪽 참조.

43) 『宣祖實錄』 卷206, 39년 12월 26일 庚申.

44) 김석배, 「『冶隱先生行錄』 研究」, 『嶺南學』 2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217~220쪽.

45) 서원 건립과 문집 간행은 조선시대 학과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황, 조식, 이이 등 조선시대 학과를 형성한 인물들의 현창 방식은 이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정문, 「『남명집』의 편간과 내암, 한강 문파의 성립」, 『조선시대사학보』 40, 조선시대사학회, 2007. ; 정석태, 「『退溪集』의 編刊 經緯와 그

금오서원과 함께 1585년에는 仁同縣監이었던 柳雲龍(1539~1601)과 지역 사림의 주도로 仁同에 吳山書院이 건립되었다. 오산서원은 길재의 묘소 앞 산기슭 나월봉 아래에 건립되었는데, 이는 서원과 묘소가 상호 연관되는 효과가 있었다.⁴⁶⁾ 유운룡은 오산서원이 건립된 같은 해 4월에 祭儀와 院規를 제정하여 오산서원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⁴⁷⁾ 당시 제정된 오산서원의 원규는 유운룡에 의해 편찬된 『吳山志』에 享祀, 祭儀, 展謁, 學規의 순서로 수록되어 있다.⁴⁸⁾

오산서원은 이미 금오서원이 길재를 주향으로 하여 사액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액 시점은 금오서원과 달리 건립 직후 바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오산서원은 1668년(현종 9) 영남 유생 이익화 등의 요청으로 사액 요청이 있었고,⁴⁹⁾ 1669년 筵席에서 송준길의 요청에 의해 사액이 결정되었다.⁵⁰⁾ 이후 예조정랑 남궁옥이 파견되어 사액 절차가 마무리되었다.⁵¹⁾

금오서원과 오산서원의 건립은 길재를 배향한다는 목적뿐만 아니라 입지 선정에도 길재와 관련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금오서원은 길재의

體裁」, 『퇴계학논집』 2, 영남퇴계학연구원, 2008. ; 이경동, 「조선후기 해주 소현서원의 운영과 위상」, 『한국사상사학』 61, 한국사상사학회, 2019. ; 이경동, 「조선후기 울곡 이이 문집 편찬의 추이와 의의」, 『유학연구』 5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0 참조.

- 46) 묘소 인근에 서원이 건립된 대표적인 사례로 도동서원을 들 수 있다. 도동서원은 한원당 묘소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서원 향사에 墓祭를 함께 지내는 특징이 있다(김경선, 『서원향사 : 남계서원·도동서원』,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170쪽).
- 47) 『吳山志』 卷第2, “書院造成, 享祀有日, 不可無祭儀及院規, 謹取陶山易東伊山白雲金烏川谷屏山等書院定規及五禮儀略加參述, … 萬曆十六年四月日, 豐山後學柳雲龍識.”
- 48) 『오산지』의 체제와 편성 경위에 대해서는 조준호, 「書院志 分析을 통해 본 初期 書院의 性格-竹溪志, 迎鳳志, 吳山志를 中心으로-」, 『한국학논총』 33,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11~13쪽. ; 임근실, 「柳雲龍의 『吳山志』 편찬 의도」,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91~100쪽 참조.
- 49) 『承政院日記』 211冊, 현종 9년 12월 26일 庚寅.
- 50) 『顯宗實錄』 卷16, 10년 3월 11일 甲辰. ; 『承政院日記』 213冊, 현종 10년 3월 11일 甲辰.
- 51) 『顯宗實錄』 卷17, 10년 11월 7일 丙申. ; 『顯宗改修實錄』 卷22, 10년 11월 7일 丙申.

행적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로, 오산서원은 길재의 묘소가 있다는 이유로 건립됨으로써 길재와 관련된 지역적 연관성이 강화되어 갔다.⁵²⁾

유운룡은 오산서원의 건립 이후에도 서원을 중심으로 길재에 대한 현창사업을 지속하였다. 대표적으로 1587년(선조 20) 서원 앞에 “砥柱中流” 4자를 새긴 비석을 세웠다. “지주중류”는 본래 백이·숙제의 사당 아래에 석각된 것인데, 이를 당시 경상감사였던 李山甫와 善山府使 柳德粹가 주도하여 세웠으며, 또한 陰記를 柳成龍(1542~1607)에게 부탁하여 지주중류비의 건립경위와 의미를 밝혔다.⁵³⁾

지주중류비의 건립은 길재의 묘소-오산서원-지주중류비를 일체화하여 이 지역을 길재와의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표상화하는 작업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주중류비는 중국의 백이·숙제의 사당인 夷齊廟 아래에 석각된 것을 模刻한 것으로 길재를 동방의 백이·숙제로 규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길재의 충절 관념을 시각적으로 확립하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을 길재의 유서가 남긴 곳으로 관념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길재가 동방의 백이로 인식되어가는 시대적 현상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영남의 대표적 山林이었던 張顯光(1554~1637)은 “만세의 강상을 보존한 것이 中夏는 伯夷이고 東方에는 治隱”⁵⁴⁾이라고 하여 백이와 길재를 대등하게 인식하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전기까지 문헌이나 인식으로만 머물렀던 길재를 충절자로 규정하거나 백이·숙제 등과 동일시하려는 관점은 서원의 건립과 지주중류비의 건립 등

52) 두 서원 이외에도 금산의 星谷書院 또한 길재를 배향하였던 서원이다. 세 서원 모두 길재를 중심으로 건립사역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길재 배향 서원의 건립 및 성격과 관련해서는 임근실, 「조선시대 길재 제향 서원의 건립 추이와 성격」,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회, 2022 참조.

53) 『治隱先生言行拾遺』 卷中, 附錄, <吳山書院事蹟畧(縣監柳雲龍)>. ; 『西厓集』 卷19, 碑碣, <砥柱中流碑>. <지주중류비>의 건립 이외에도 1569년 현감 조천계가 묘소에 ‘高麗忠臣吉再之墓’라고 세운 비석을 ‘高麗門下注書治隱吉再之墓’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54) 『旅軒集』 卷10, 跋, <治隱先生文集跋>, “誠以立天下之大閑, 存萬世之綱常者, 中夏而伯夷, 我東而先生.”

으로 시각화되었다.

금오서원, 오산서원의 건립 이후에도 길재의 현창 활동은 금오산을 중심으로 선산과 인동 지역에서 지속되었다. 대표적으로 1708년(숙종 34)에는 금오산에 길재를 기리기 위해 採薇亭과 求仁齋가 건립되었고,⁵⁵⁾ 1830년(순조 30)에는 길재와 관련한 숙종의 翰墨을 봉안한 敬慕閣이 건립되었다.⁵⁶⁾ 서원 이외에도 다양한 현창사업의 추진은 길재의 위상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절의와 도학으로 대표되는 표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선산, 인동 및 금오산 일대를 방문하는 지식인들은 금오서원이나 오산서원, 채미정, 그리고 길재의 묘소 등을 방문하면서 길재를 충절과 도통의 이해를 강화하였다. 대체로 영남지역의 문인들이 방문하면서 길재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는 경향이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1626년(인조 4) 趙任道の 오산서원을 방문 사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병인년(1626, 인조 4) ... “이 낙동강 상류의 道東書院과 吳山書院에는 寒暄堂과 治隱의 사당이 있고, 不知巖에는 여헌 선생이 기거하고 있다. 배를 타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당을 참배하고 선생을 배알한다면 일거양득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마침 이웃에 사는 배 장사꾼 徐山水라는 자가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을 내가 듣고서 기뻐하며 그와 함께 가기로 약속하였다. ... 저녁에 吳山書院에서 잤다. 출발하려고 하는데 진사 李衍 어른은 밥을 지어 대접하려 하고, 李秀彥은 술 자리를 마련하여 우리를 초청하였다. 마침 말고삐를 나란히 하여 오고 있던 申汝嘉와 張經叔을 만났다. 여기는 서원의 유사이고, 경숙은 선생의 뒤를 이은 양자이다. 다음 날 맑은 새벽에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의관을 단정히 하고서 사당 아래에서 참배한 뒤 재계하는 방에 물러나 앉아 『尋院錄』에 성명을 기록하였는데, 도동서원에서 한 것과 같이하였다. 또 『吳山志』를 구해 보고 나서, 砥柱中流碑 아래로 걸어 나가 돌에 새겨진 큰 네 글자를 어루만지고 비에 새겨진 서문과 銘文을 읽었는데, 吉治隱의 풍절은 높았고, 楊晴川의 필획은 기이하였고, 柳西厓의 문장은 홀

55) 『治隱先生續集』 卷中, 附錄, <採薇亭記><求仁齋記>

56) 『治隱先生續集』 卷中, 附錄, <敬慕閣記>. 이외에도 1694년(숙종 20) 부사 金萬增에 의해 세워진 吉再遺墟碑와 1795년(정조 19)에 세워진 吉再旌閭碑 등이 있다(김무진, 『구미 야은 길재 증가』, 경북대학교 출판부, 2022, 156쪽).

를하였다.⁵⁷⁾

조임도의 사례에서와 같이 다른 인물들의 방문도 이와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방문은 단순히 우연한 방문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절의 및 도통의 전수자로서의 길재를 추념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다른 인물들에게도 확인되는다는 사실은 선산과 인동이 길재라는 인물과 동일시되었음을 보여준다.

금오서원과 오산서원에는 영남지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인물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율곡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송준길과 송시열도 오산서원을 방문하였으며,⁵⁸⁾ 낙론계에 해당하는 김창협이나 민우수도 길재의 유허지를 방문하기도 하였다.⁵⁹⁾ 길재의 묘소나 생전의 주요 활동 공간이던 지역뿐만 아니라, 길재의 행적과 관련된 지역 또한 현장활동이 지속되었다. 대표적으로 충청도 錦山은 길재가 부친인 吉元進을 안장하고 3년상을 지냈던 지역으로 길재를 기리고자 1711년(숙종 37) 사당인 淸風祠가 건립되었다.⁶⁰⁾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볼 때, 길재는 특정 학파나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충청과 동방도학의 전수자로서 사회 보편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7) 『濶松別集』 卷1, 錄, <尋賢錄>.

58) 『同春堂集』 <年譜> 甲戌年條.

59) 『農巖集』 卷2, 詩, <謁冶隱祠墓>. ; 『貞菴集』 卷1, 詩, <冶隱遺墟>.

60) 『冶隱先生續集』 卷中, 附錄, <淸風祠記><百世淸風碑陰記>. <淸風祠記>에 의하면, 이 지역은 본래 富利였는데, 길재를 기리고자 음이 유사한 不二로 변경하였다고 한다(村之名本富利, 郡人易之, 蓋取先生不事二君之義). 금산 지역에 길재에 대한 현장 활동은 금산 富利面 姑洞에 길재 후손들의 先塋이 간헐적으로 조성되어 있었던 점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길재의 아들 5세 길사순부터 고통에 묘소를 두고 있었다. 1602년(선조 35) 선산에 길재의 사당이 재건된 이후 선산이 주 소거지로 삼았지만, 선영이 존재하는 금산은 17세기 이후에도 문중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불이사를 비롯한 금산에 조성되는 길재 관련 건물들의 건립을 추진할 당시 길재의 후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에서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김무진, 앞의 책, 157~164쪽).

2. 出處 논란과 위상 강화

절의와 도통을 중심으로 이해된 길재는 일부 지식인들에 의해 비판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출처와 관련한 논란은 길재가 신돈의 자손이라는 혐의가 있는 ‘僞朝’ 우왕과 창왕대에 출사하였다는 사실과, 자신은 조선에 출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아들은 조선에 출사하도록 하였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南孝溫의 <過金烏山詩>에 나타난 出仕에 대한 해석

南孝溫(1454~1492)은 생육신의 하나로 금오산을 지나면서 길재와 관련한 시문인 <過金烏山詩>를 지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秋深百川明琉璃	가을 깊어 온갖 시내 유리처럼 밝고
霜摧萬樹紅錦綺	서리에 꺾여 모든 나무 비단처럼 붉네
辛朝注書吉冶隱	신조에서 주서 벼슬한 길야은 공이여
秀於嚴霜清於水	된서리보다 빼어나고 물보다 맑으시네
大節銘在蒼生口	크나큰 절개는 백성 입에 새겨져 있으나
烏山截空一百祀	금오산은 공이 떠나 백년 동안 텅 비었네
武王革命天眷隆	무왕의 혁명은 하늘이 크게 들렀거늘
夷何爲哉而獨恥	백이는 어찌하여 홀로 부끄러워했던가
鴻毛命輕義重山	홍모보다 목숨 가볍고 태산보다 의리 중하니
公與達可知此理	야은공과 달가만이 이 이치 알았다오
達可身經二姓王	달가는 몸소 두 성의 임금을 섬겼으니
杞梓寸朽鑑中毗	재목의 한 치 상처요 거울 속의 흠이라
公身所委惟一君	공의 몸 맡긴 바는 오직 한 임금뿐이니
眞知獨行誰與比	참된 앎 홀로 행함은 누가 함께 견주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정몽주와 비교하여 길재의 절의를 높이려는 의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시구 중에서 達可 즉 정몽주는 두 임금을 섬겼다는 내용과 길재가 辛朝 즉 신씨 조정에서 注書 벼슬을 하며

一君을 섬겼다는 대목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길재는 우왕대에 과거에 급제하여 창왕대에 주서가 된 이후 낙향하였다. 남효온은 길재가 ‘僞朝’인 辛氏 조정에서 벼슬하였고, 정몽주의 경우는 王氏와 辛氏를 모두 섬겼다는 점에서 二姓王을 거쳤던 것으로 보았다. 남효온의 시에서 길재의 낙향 사유는 辛氏 조정에서 출사하였다가 다시 王氏인 공양왕에게 벼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었다. 이러한 시각은 시를 지은 남효온의 의도와는 별개로 辛氏와 王氏를 섬긴 정몽주에 대한 비판과 함께 僞朝에서 출사한 후 새롭게 건국된 조선에 대한 출사를 거부한 길재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길재의 출처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존재했으며, 17세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검토되었다.⁶¹⁾ 鄭經世(1563~1633)는 남효온의 시구에 대한 인물 평가가 부적절함을 논하였다. 정경세는 길재와 정몽주의 처세에 있어 길재는 미관말직으로서 국가의 존망에 자신의 존망을 등치시킬 수 없는 입장으로 왕조의 멸망에 따라 기미를 살펴보고 물러나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한 것이고, 정몽주의 경우는 대신의 신분으로서 사직을 지탱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신의 몸을 바친 것으로 규정하였다.⁶²⁾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처신은 辛氏와 王氏 ‘二姓王’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고려의 멸망에 따른 절의를 지켰던 방식의 차이였으며, 우왕·창왕대의 출사 여부 자체를 허물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러한 정경세의 관점은 남효온의 시각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길재의 절의에 대한 관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경세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은 남효온의 평가에 대한 비판적 시

61) 길재의 관료생활과 관련하여 출처에 대한 의문은 16세기부터 간헐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이황의 경우, 우왕과 창왕이 신씨라고 하더라도 공민왕이 자손으로 여겼기 때문에 정몽주와 길재의 절의가 하자가 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治隱先生續集』 卷下, 附錄, <退溪言行錄>, “問, 李穡當立前王之子, 圃隱治隱之守節, 果爲辛氏耶, 答曰, 爲此語者, 固出於此, 然不可以三人一時事, 疑其不當疑, 況雖辛氏, 而吾王既以爲子, 則鄭吉之事, 固其所也”).

62) 『治隱先生續集』 卷下, 附錄, <書南秋江過金烏山詩後>. ; 『愚伏集』 卷15, 跋, <書南秋江過金烏山詩後>.

각을 확인할 수 있다. 奎湜은 해당 시구 자체가 수록될 필요가 없었다고 평가했으며,⁶³⁾ 안정복의 경우는 우왕과 창왕을 辛氏로 규정한 것은 왕조 교체를 정당화하려는 세태의 하나로 이해하면서 남효온이 이해한 ‘二姓’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⁶⁴⁾ 이러한 경향은 길재의 출사 당시의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갔음을 보여준다.

2) 安邦俊의 ‘길재=揚雄’ 인식과 비판

남효온의 사례가 고려말 길재의 출사와 관련한 내용에 국한되었다면, 조선에 출사하지 않는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우왕과 창왕이 王氏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舊弊를 일소하고 새롭게 나라를 개창한 朝鮮에 출사하는 것이 타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安邦俊(1573~1654)의 <牛山問答>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미년(인조 21, 1643) 겨울 12월에 牛山主人이 澤堂에게 보낸 답장의 별지에 말하기를, “우리 조선이 수백 년 동안 名賢을 잇달아 배출했으나, 그 중에서 眞儒를 논하면 겨우 몇 사람일 뿐입니다. 고려말에 注書 吉再는 언행과 출처가 揚雄의 무리인데도, 사관이 遺逸과 節義로 대서특필하여 伯夷·叔齊와 비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훗날 역사를 쓰는 자는 이 일을 경계로 삼아 여러 명현의 사업과 공덕을 筆削할 때에 더욱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객이 묻기를, “야은의 언행과 출처는 포은과 나란히 칭송되어 사람들이 이의를 달지 않은 지 오래되었었는데, 주인은 수백년 후에 태어나 어떤 소견이 있기에 이와 같은 이론을 세우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비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대저 사람들의 소견은 각자 다릅니다. … 길재는 恭定(태종)과 함께 학문한 옛 친구인데, 공정이 세자가 되어 편지를 보내 부르자 길재는 수레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공정이 恭靖大王(정종)에게 아뢰어 奉常博士를 제수하니, 길재는 대궐에

63) 『沙西集』 卷4, 雜著, <南秋江詩>, “此語不當載而載之 可歎”

64) 안정복의 견해에 대해서는 안장리, 「야은 길재에 대한 추승과 비판에 대한 연구」, 『포은학연구』 18, 포은학회, 2016, 47~48쪽 참조.

나아가 謝恩肅拜하지 않고 恭定에게 편지를 올려 ‘再는 옛적에 저하와 더불어 泮宮에서 시를 읽었는데 오늘의 부름은 옛정을 잊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재는 辛氏 조정에서 급제하여 처음으로 부름에 나아가 門下注書에 이르렀습니다. 신은 여자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고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바라건대 고향으로 돌아가게 놓아주시어 두 성씨를 섬기지 않으려는 신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노모를 효성으로 봉양하여 남은 생애를 마칠까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신돈의 조정에서 급제하여 처음으로 벼슬에 나갔다가 왕씨가 復位함에 이르러 곧장 고향으로 돌아가 몸을 마치려 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자신은 신씨의 신하이저 왕씨의 신하가 아님을 내보인 것이요, 또 ‘신은 본래 寒微하여 辛氏 조정에서 벼슬에 나아가 門下注書에 이르렀습니다. 신은 여자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고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바라건대 고향으로 돌아가게 놓아주시어 두 성씨를 섬기지 않으려는 신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노모를 효성으로 봉양하여 남은 생애를 마칠까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신돈의 조정에서 급제하여 처음으로 벼슬에 나갔다가 왕씨가 復位함에 이르러 곧장 고향으로 돌아가 몸을 마치려 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자신은 신씨의 신하이저 왕씨의 신하가 아님을 내보인 것이요, 또 ‘신은 본래 寒微하여’라고 운운한 것은 은연중 집안이 대대로 왕씨의 녹을 먹지는 않았지만 5백년 왕씨의 백성이 아닙니까? 5백년 왕씨의 백성으로 역적 신돈의 자식에게 신하 노릇을 했다면 참으로 이는 揚雄의 무리요 그가 한 말은 자못 심한 점이 있습니다. … 시비와 진위를 세상이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추대하여 권장함이 지나치게 伯夷·叔齊에 비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백이·숙제를 어찌 그리 욕되게 하는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 ”⁶⁵⁾

안방준은 禡王·昌王을 辛旽의 자손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재위 기간에 출사한 길재의 행위는 王莽의 新나라에 출사했던 揚雄과 동일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길재가 우왕·창왕대에 벼슬하였음을 근거로 오히려 새롭게 개창된 조선에 출사하지 않고 僞朝에 절의를 지키는 것은 출처 의리상 옳바르지 않다고 이해했다. 따라서 길재에 대해 백이·숙제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안방준의 입장은 당시 사회 전반에 인식된 충절·절의의 상징으로서 확립된 길재의 평가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안방준의 주장은 긍정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주류를 차지하였다. 奇義獻은 안방준이 주요 근거로 언급한 辛朝가 사실은 前朝로서 편찬자의 追述의 따른 오류로서 길재 스스로 자신의 절의를 고려로 규정하고 있음을 미루어 양웅과 같은 선상에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

65) 『隱峯全書』, <牛山答問>.

고,⁶⁶⁾ 李翊의 경우 辛朝를 언급한 것은 王朝라고 언급하여 화를 초래하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보았다.⁶⁷⁾ 윤선도는 안방준의 견해를 길재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규정하며 오히려 길재에 대해 ‘백이의 맑은 절조와 箕子의 충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伯夷이면서도 속이 좁지 않은 자’로 규정하기도 하였다.⁶⁸⁾ 대체로 양용과 길재를 동일하게 간주한 안방준의 견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방준의 비판과 달리 길재에 대한 절의와 도통적 관점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이는 다음의 견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a) 대체로 우리나라의 理學은 鄭夢周와 李穡이 비로소 제창하였습니다. 이색은 문장과 節行이 매우 뛰어났으나 불교를 숭상하는 기미가 있었고, 정몽주는 이 학이 고명할 뿐만 아니라 그 순수한 충성과 큰 절개가 더할 수 없었습니다. 吉再는 정몽주의 제자인데, 金宗直의 학문이 길재에서 나왔고, 鄭汝昌·金宏弼은 김종직의 제자입니다. 趙光祖 이후로는 도학이 크게 밝아졌으나 世道는 도리어 중고 이전만 못하였으니, 진실로 한탄스럽습니다.⁶⁹⁾
- (b) 고려 시대에 절의를 지킨 인사가 본래 적은 그 가운데에서도, 나라가 위태로워지기 전에 먼저 조정을 떠난 것은 오직 선생만이 유독 그러하였으니, 그러고 보면 고려 시대의 義士들 중에서도 선생의 처신이 또 더욱 완전했습니다. 대개 선생이 鳳溪에 은거한 것이 고려가 망하기 전이었고 보면 선생은 고려 시대의 逸民이었고, 고려가 망한 뒤에는 고려 왕실의 충신이 되었으니, 그 맑은 풍도와 드높은 절조 모두가 백세토록 貪夫와 懦夫를 각성시키기에 충분합니다.⁷⁰⁾

(a)는 宋浚吉(1606~1672) (b)는 趙翼(1579~1655)의 입장이다. 모두 학문적으로는 율곡학과, 정치적으로는 西人에 해당되는 인물들이다. 송준길의 경우는 16세기 이래로 확정된 동방 도통의 계보에서 길재를 이

66) 『治隱先生續集』 卷下, 附錄, <答安邦俊別紙(棄隱奇義獻)>.

67) 『治隱先生續集』 卷下, 附錄, <論安邦俊與俞榮答問(參判李翊)>.

68) 『孤山遺稿』 卷4, 書單, <上鄭知事(世規)別幅(己亥正月)>.

69) 『同春堂別集』 卷4, <經筵日記> 庚子 3월 27일.

70) 『浦渚集』 卷27, 跋, <書治隱先生言行拾遺後>.

해하고 있다. 조익 또한 이러한 도통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면서도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킨 대표적 인물로서 길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길재를 逸民으로 파악하고, 길재의 절조는 貪夫나 懦夫를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안방준의 견해는 예외적인 것에 해당했다.

길재의 출처관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길재는 고려의 절의를 다한 인물로 규정되면서 절의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잡아갔다. 길재가 고려의 멸망을 예상하고 낙향한 것은 先見之明이 있었던 행위로 이해하거나,⁷¹⁾ 동방의 伯夷와 같이 절의적인 부분을 주목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⁷²⁾ 또한 『麗史提綱』, 『彙纂麗史』 등 고려의 역사를 정리한 저서들에서도 길재의 학문적 업적과 출처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은 찾아보기 어렵다.⁷³⁾ 이는 19세기까지도 이어지는데 다음의 洪直弼(1776~1852)의 견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길재가 말한 “두 성씨를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공양왕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바로 本朝를 가리킨 것이니 이는 문리를 조금이라도 깨우친 자라면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莽大夫에 견주어 말하였으니 常情에서 나온 바가 아닌 듯 합니다. 어찌 은봉 같은 분이 이런 말을 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기사년과 경오년 사이에 벼슬을 내놓고 나오지 않은 것을 辛氏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市南의 말씀이 마땅히 바꿀 수 없는 정론이 될 것입니다. 길재는 대나무를 길러 고려의 밭에다 심고 국화를 따서 伯夷의 혼령에 제사하여 지금까지도 마을 아낙들이 이에 감화되어 자신의 지조를 바꾸지 않으니 깨끗한 풍모와 높은 절개가 천고에 진동합니다. 어찌 그 사이에 시비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일을 논할 때에는 마땅히 大體를 들어야 하고 인물을 논할 때에는 마땅히 大節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주워 모으고 걸음걸음마다 잘못을 찾아낸다면 세상에 어찌 다시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언론만 독실한 자들이 마땅히 경계하고 경계해야 할 바입니다.⁷⁴⁾

71) 『治隱先生續集』 卷下, 附錄, <題治隱集後(洪世泰)>.

72) 『治隱先生續集』 卷中, 附錄, <不二遺墟碑陰記(樸泉宋明欽)>.

73) 『治隱先生續集』 卷下, 附錄, <麗史提綱(市南俞榮)><彙纂麗史儒學傳(木齋洪汝河)>

74) 『梅山集』 卷17, 書, <答林學卿>.

길재의 출처 논란은 오히려 길재의 출처 의리를 한층 견고하게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길재가 우왕과 창왕대에 출사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이를 신씨 조정에 충성하는 것이라는 관점은 부정되었고, 길재가 지키려고 했던 절의는 ‘僞朝’·‘辛朝’가 아닌 ‘高麗’·‘王朝’로 일원화함으로써 길재에 대한 출처관에 대한 시각이 정리되어 갔다.

3. 길재에 대한 인식과 해석의 분화

길재의 행적과 관련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사업과 출처 논란의 과정에서 길재는 절의와 도학의 상징으로서 확립되어 갔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조정에서도 길재에 대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묘소와 길재 배향 서원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致祭 활동이 확인되며, 숙종·정조·순조 등 국왕들의 親祭文과 御製詩를 통해 충절과 도학으로 상징화된 길재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⁷⁵⁾

조정에서 길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주목될 점은 가시적인 조치들이 추진된 것이었다. 우선 숙종은 정몽주와 함께 길재에 대한 치제문에서 실명을 적지 말고 ‘鄭公’, ‘吉公’과 같이 避諱하도록 지시하였다.⁷⁶⁾ 숙종이 특별하게 정몽주와 길재에 대해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는 사실은 두 인물이 동일하게 평가됨과 동시에 존숭의 방식 동안 이와 연관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영조대에는 길재에 대한 贈諡가 이루어졌다. 증시의 건의는 경상감사였던 이기진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기진이 아뢰기를, “그 밖의 나머지 荒政에 대해서는 장계로 여쭙겠습니다만

75) 『治隱先生續集』 卷中, 附錄, <御製詩(肅廟丁亥秋 念先生節義 特製五言絕句 手寫下于儀賓寺 上又命領議政崔錫鼎 吏曹判書趙相愚廣進 因命後孫殿中君震龜除清河縣監)><賜祭文(正宗戊午九月十七日 親製文 遣承旨李益運 賜祭于金烏書院)><御製詩(純祖次肅廟御製韻)><御製詩(翼宗題吉治隱抗節圖 圖在三綱行實)>.

76) 『英祖實錄』 卷31, 8년 3월 25일 壬午.

신이 부여받은 임무가 이미 무겁고 삼가 소회가 있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절의를 崇獎하는 것은 나라를 가진 분의 급선무입니다. 고려조의 충신 吉再가 金烏山 아래 은거하면서 임금이 하사한 밭에 대나무를 심고 죽을 때까지 그 절개를 바꾸지 않았으니, 凜烈한 정절과 충성은 百世토록 숭상할 만하여 列聖朝에서 다 존송하고 보답하는 은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호를 내려 이름을 바꾸는 일이 없다고 하니, 이는 참으로 欠典입니다. 지금 조정에서 각별하게 시호를 내리고 致祭한다면 격려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하니, … 박사수는 아뢰기를, “박상충은 소신의 祖先입니다. 정몽주는 문묘에 從享되었고 박상충은 肅廟께서 시호를 내렸으니, 길재에게도 같이 시호를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先朝께서 두 사람에게 이미 시호를 내리셨으니, 선조를 본받아야 하는 뜻에서 길재에게도 시호를 내리고 치제해야 한다. 하지만 그의 자손이 殘微하다고 들었다. 해당 조에 분부하여 이 3인의 奉祀孫 중에 쇠락한 자를 각별히 調用하게 하라.”하였다.⁷⁷⁾

이기진의 건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길재의 증시는 18세기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기진에 의해 당시 荒政을 비롯한 영남의 민심수습책의 하나로서 길재의 증시가 건의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조정에서 큰 논란이 없이 정리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방 도통의 전수자로서 길재의 위상을 고려해 보면 증시가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것이기도 했다.

시호 의정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忠節’의 시호가 내려졌다.⁷⁸⁾ ‘충절’ 시호는 길재와 관련한 조선초기부터 인식된 관념이 반영된 것이기는 했지만, 시호의 명칭이 상당히 직설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호에 대한 다양한 명명방식이 존재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충절’이란 의미에는 정치적 의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시호가 결정된 1738년(영조 14)은 국정운영 과정에서 주목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탕평정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편, 壬寅獄事에 대한 충역의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또한 무신란이 종결되기는 했지만

77) 『承政院日記』 878冊, 영조 14년 9월 1일 庚戌.

78) 『英祖實錄』 卷54, 17년 8월 20일 壬子. ; 『承政院日記』 934冊, 영조 17년 8월 20일 壬子.

여전히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안집책 마련이 대두되었다. 이 과정에서 荒政에 대한 논의에서 거론된 길재의 시호 의정은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충절’ 시호는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탕평정국을 운영하면서 ‘충절’과 ‘의리’는 영조 스스로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용어였다. 탕평정국에서 영조의 정치적 입장을 수용하는 것인가의 문제는 충절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길재에게 ‘忠節’이라는 시호를 내린 것은 일정한 의도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영조의 입장에서 당대의 길재가 소환되는 방식은 신축옥사로 인한 노론계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관점과 탕평책의 추진에 대한 지지와 호응이라는 이원화된 관점이 적용될 수 있었다.⁷⁹⁾

다음으로 길재의 증시는 영남지역의 민심 안집책과도 연관되어 있다. 실제 증시 건의가 荒政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길재에 대한 증시가 일정 부분 영남지역의 인심을 안집시키려는 의도도 있었음을 나타낸다. 1728년(영조 4) 발생한 戊申亂은 영남지역을 叛逆鄉으로 규정되는 계기로 작용했으나, 영남에 대한 독자성을 인정하며 다양한 수습책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안집책이 시행되었다.⁸⁰⁾ 영조는 길재에게 ‘충절’ 시호를 내려줌으로써 영남 지역의 민심 안집을 이루고자 했던 의도가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런 ‘충절’ 시호는 다른 한편으로 길재의 도학적 면모, 즉 도통의 전수자로서의 역할을 배제한 명칭이었기 때문에 당대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길재에 대한 도통적인 시각은 충절과 대등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⁸¹⁾ 정몽주의 제자로서 동방 이학의 개창자로 규

79) 탕평론을 비롯한 영조대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만조 외,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15~110쪽. ; 최성환, 『영·정조대 탕평정치와 군신의리』, 신구문화사, 2020, 39~166쪽 참조.

80) 이근호, 「영조대 무신란이후 경상감사의 수습책」, 『영남학』 1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157~162쪽.

81) 『正祖實錄』 卷22, 10년 10월 28일 戊辰. ; 『承政院日記』 1613冊, 정조 10년 10월 28일 戊辰.

정되거나,⁸²⁾ 정몽주의 학문을 전수한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⁸³⁾ 이러한 점들은 ‘충절’이라는 시호에 대해 견해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충절과 도통 사이의 길재 인식의 편차는 실질적으로 시호 개칭 논의에까지 이어졌다. 1798년(정조 22) 영남 유생들에 의해서 ‘충절’ 시호에 대한 개정이 건의되었다.

옛날 先朝 때에 道臣이 진달한 데 따라 忠節이라는 시호를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방의 性理學은 鄭夢周와 길재에 의해 唱導되었고 그 문하에 이르러서 闡明되었습니다. 隆慶초에 詔使 許國이 동방의 孝烈節義와 孔·孟의 心學을 전수받은 사람에 대해서 물어 보았을 때 臣先正 李滉이 禮官으로서 구별해 대답하면서 길재를 심학쪽에 배치하였으니, 이는 대체로 길재가 이룩한 학문의 공이 절의보다 훨씬 비중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시호에 단지 충절만 거론한 것은 현인을 본받게 하는 의리에 부족한 점이 있으니 해조로 하여금 稟處하게 하소서."⁸⁴⁾

영남 유생들의 견해에서는 충절이라는 시호가 길재를 평가하는 데 미흡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길재는 충절과 더불어 포은의 도학을 전수하는 도통의 계보 속에 포함되는 인물로서, ‘충절’ 시호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시호 개정을 윤택하지 않았다. 이 또한 길재와 관련하여 국왕인 정조와 신료 혹은 재야 유생 사이의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점차 인식의 층위가 이중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왕을 중심으로 한 길재에 대한 이해와 별개로 길재에 대한 충절과 도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재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해주의 백이·숙제를 배향하는 淸聖廟에 길재를 추향하고자 했던 시도는 충절

82) 『承政院日記』 1050冊, 영조 25년 11월 29일 甲戌, “吉再, 麗末人, 官止注書, 號爲治隱, 卽鄭夢周號圃隱之弟子, 而創開東方理學者也.”

83) 『承政院日記』 2103冊, 순조 18년 9월 20일 乙卯, “吾東方道學之宗, 實自麗朝文忠公 鄭夢周始, 而夢周傳之吉再, 吉再傳之叔滋, 叔滋卽文簡公臣金宗直之父也.”

84) 『正祖實錄』 卷49, 22년 10월 5일 乙未. ; 『承政院日記』 1798冊, 정조 22년 10월 5일 乙未.

을 중심으로 한 길재 인식의 한 면모를 나타낸다.⁸⁵⁾ 18세기에 길재를 문묘에 종사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었다는 점도 도통의 계보 속에서 이해된 길재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낸다.⁸⁶⁾ 결과적으로 충절과 도통이라는 두 인식 사이에서 해석의 방향은 동시대라 하더라도 차이를 보일 수 있었다.

충절과 도통을 기반으로 길재는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었다. 길재의 효행과 관련한 사례들이 언급되었으며,⁸⁷⁾ 길재에게 교화된 마을이나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전승되어갔다.⁸⁸⁾ 길재는 절의, 도통과 함께 효행과 교화의 중요한 인물로서 이해되어 갔다. 이러한 점은 길재에 대한 이해가 보다 다양하게 전개되어 갔음을 보여준다.

길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세기 李裕元(1814~1888)이 저술한 『林下筆記』이다. 『임하필기』에는 야은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林下筆記』에 수록된 길재 관련 내용

항목	내용
祭祀	治隱 吉再는 부모 忌日 때마다 쌀 한 톨도 먹지 않았으며, 종일 토록 눈물을 흘렸다.
處世	治隱 吉再는 이웃이 상을 당하면 비록 미천한 자라 하더라도 죽을 먹었는데, 배부르게 먹은 적이 없었다.
道統	고려 말의 禹倬과 鄭夢周 이후에야 비로소 성리학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 세종조에 이르러서야 禮樂과 文物이 찬란하게 새로워졌다. 東方의 학문이 서로 전해진 차례를 말하면, 정몽주가 동방 理學의 시조가 되고, 吉再는 정몽주에게 배웠고, 金淑滋는 길

85) 『治隱先生續集』 卷下, 附錄, <請躋配清聖廟疏廳通文><請躋配清聖廟疏>.

86) 『治隱先生續集』 卷下, 附錄, <請改謚陸庵通文><請陸庵疏>.

87) 『承政院日記』 651冊, 영조 3년 12월 9일 丙寅; 『星湖僿說』 卷17, 人事門, 「不聞有忌日」.

88) 김훈식, 「조선 후기의 吉再 追崇과 백성 교화-烈女 藥哥 이야기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2, 부산경남사학회, 2014, 91~99쪽.

	재에게 배웠으며, 金宗直은 김숙자에게 배웠고, 金宏弼은 김종직에게 배웠으며, 趙光祖는 김굉필에게 배웠으니, 절로 淵源의 전해짐이 있다.
爲師服喪	吉再到는 57세에 朴賁를 위하여 心喪 3년을 행하였으며 또 65세에 權近을 위하여 역시 이와 같이 하였다.
吉再墓碑	길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고 ‘砥柱中流’라는 녀자의 큰 글자를 새겼는데, 중국 關中 사람인 楊晴川이 쓴 글씨이다.
召吉再	定宗 2년에 前朝의 門下注書 길재를 불러 奉常寺博士를 제수하였다. 이에 길재가 上書하기를, “여인네는 두 지아비를 두지 않으며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법입니다. 放歸田里하여 두 姓을 섬기지 않으려는 뜻을 이루게 해 주소서.” 하니, 상이 그 절의를 가상히 여겨 예우하여 돌려보내고 그 집을 復戶하도록 하였다. 世宗朝에 左司諫을 증직하고, 영종조에 ‘忠節’의 시호를 내렸다.
麗季八隱	松隱 朴天翊, 圃隱 鄭夢周, 牧隱 李穡, 治隱 吉再, 成隱 金大潤, 桐隱 李在弘, 休隱 李錫周, 晚隱 洪載, 이상의 여덟 사람들을 ‘팔은’이라고 한다.

『임하필기』의 내용들은 새롭게 창작된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길재와 관련한 사례들을 종합한 것이다. 다만, 그것이 항목별로 세분화된다는 점에서 길재가 해석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충절과 도통으로 상징화된 길재 인식의 확장된 면모를 보여준다. 절의와 도학으로 설명되던 길재가 보다 다양한 사례와 범주화를 통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길재는 18세기에 이르러 충절이라는 시호가 내려짐으로써 조선초기에 확립된 길재에 대한 인식이 국가 차원에서 공인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충절’ 시호는 도통의 전수자로서의 시각은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인식 사이의 균열점도 동시에 확인된다. 충절과 도통 이외에도 길재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길재에 대한 평가와 인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IV. 맺음말

과거 인물에 대한 평가는 시기에 따라 변화된다는 점에서 역사성을 가진다. 인물과 관련된 행적이나 사건, 그리고 남겨진 저작들을 바탕으로 해석은 역동적인 특징이 있다. 여말선초라는 격변기에서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고 출사를 포기한 길재라는 인물 또한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거쳐왔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길재라는 인물에게서도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길재에 대한 전통적인 평가는 ‘절의’와 ‘도통’으로 이원화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조선전기부터 확인되며, 시기나 평가 주체에 따라 두 개념이 결합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면서 전개되어 갔다. 길재는 고려의 신하로서의 조선으로의 출사를 거부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정몽주와 함께 절의의 상징으로 규정되었다. 16세기 사림파의 정치적 성장과 동방 도학의 계보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길재는 정몽주라는 고려시대 인물과 김종직, 김굉필, 조광조 등 조선시대 도학자들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인물로 자리잡았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절의’와 ‘도통’이라는 길재 인식의 범주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현창의 방식이나 주목하는 지점들에서는 선택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길재 인식이 변화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는 선산, 인동, 금산을 중심으로 진행된 서원과 사우의 건립을 통한 현창사업, 길재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응, 그리고 국가 및 민간 차원에서 해석된 길재에 대한 평가 등이다. 이들은 서로 분절적인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점은 조선후기 사회가 과거의 인물을 해석했던 역동적 측면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길재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사람들에 의해 해석되었던 다양한 인물들에게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의 사실을 해석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당대의 문제의식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길재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과거의 주요한 사건, 인물을 중심으

로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한다면 조선후기 사상사의 지평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 이 논문은 2023년 02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02월 27일부터 03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03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澗松集』 『孤山遺稿』 『錦溪集』 『農巖集』 『同春堂集』 『梅山集』 『沙西集』 『西厓集』
『冶隱集』 『旅軒集』 『愚伏集』 『隱峯全書』 『靑莊館全書』 『退溪集』 『浦渚集』
『東文選』 『林下筆記』 『星湖僿說』 『吳山志』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 김경선, 『서원향사 : 남계서원·도동서원』,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김무진, 『구미 야은 길재 증가』, 경북대학교 출판부, 2022.
정만조 외,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최성환, 『영·정조대 탕평정치와 군신의리』, 신구문화사, 2020.
Hobsbawm·Eric J(강성호 옮김), 『역사론』, 민음사, 2002.
余英時(이원석 옮김), 『주희의 역사세계』(상), 글항아리, 2015.
- 권연용, 「世宗」, 『한국사시민강좌』 13, 일조각, 1993.
김석배, 「『冶隱先生行錄』 研究」, 『嶺南學』 2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김영두, 「中宗代 文廟從祀 論議와 朝鮮 道通의 形成」, 『史學研究』 85, 한국사학회, 2007.
김용현, 「야은 길재의 두 가지 표상 : 절의의 실천과 도통의 전승」, 『한국학논집』 6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6.
김훈식, 「《三綱行實圖》 보급의 社會史的 高찰」, 『震檀學報』 85, 진단학회, 1998.
김훈식, 「15세기 조가의 길재 추승과 인식」, 『민족문화논총』 1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김훈식, 「조선시대의 길재 추승과 出處義理」, 『嶺南學』 2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
김훈식, 「조선 후기의 吉再 追崇과 백성 교화-烈女 藥哥 이야기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2, 부산경남사학회, 2014.
남재철, 「야은 길재에 대한 역대 찬영시 검토1」, 『대동한문학』 42, 대동한문학회, 2015.

- 남재철, 「야은 길재에 대한 역대 찬영시 검토2」, 『인문과학논총』 37-2,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 도현철, 「훈민정음의 창제와 유교 교화의 확대」, 『東方學志』 19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1.
- 류영수, 「금오서원 창건과 구미 정신」, 『민족문화논총』 7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 민현구,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국사시민강좌』 40, 일조각, 2007.
- 서정문, 「『남명집』의 편간과 내암, 한강 문파의 성립」, 『조선시대사학보』 40, 조선시대사학회, 2007.
- 신동훈, 「세종대 향교 교도 파견과 교관직 확대」, 『朝鮮時代史學報』 102, 조선시대사학회, 2022.
- 심영환, 「조선초 길재의 추증과 추증첩의 복원」, 『포은학연구』 7, 포은학회, 2011.
- 안장리, 「야은 길재에 대한 추승과 비판에 대한 연구」, 『포은학연구』 18, 포은학회, 2016.
- 이경동, 「16세기 도통론의 전개와 포은 정몽주의 위상」, 『포은학연구』 17, 포은학회, 2016.
- 이경동, 「조선시대 해주 소헌서원의 운영과 위상」, 『한국사상사학』 61, 한국사상사학회, 2019.
- 이경동, 「조선후기 율곡 이이 문집 편찬의 추이와 의의」, 『유학연구』 5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0.
- 이근호, 「영조대 무신란이후 경상감사의 수습책」, 『영남학』 1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 이병훈, 「조선후기 선산지역 재지사족의 동향과 원사 건립 추이」, 『민족문화논총』 7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9.
- 이병훈, 「조선후기 선산 금오서원의 건립과 운영」, 『민족문화논총』 7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 이수환, 「星州 迎鳳書院 연구」, 『역사교육논집』 54, 한국역사교육학회, 2015.
- 李泰鎭, 「吉再 忠節 追崇의 時代的 變遷」, 『韓國思想史學』 4-5, 한국사상사학회, 1993.
- 임근실, 「柳雲龍의 『吳山志』 편찬 의도」, 『韓國書院學報』 2, 한국서원학회, 2013.

- 임근실, 「16세기 善山지역 서원 건립에 나타나는 道統意識-金烏書院과 吳山書院을 중심으로」, 『退溪學報』 137, 퇴계학연구원, 2015.
- 임근실, 「조선시대 길재 제향 서원의 건립 추이와 성격」,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회, 2022.
- 정석태, 「『退溪集』의 編刊 經緯와 그 體裁」, 『퇴계학논집』 2, 영남퇴계학연구원, 2008.
- 정수환, 「조선후기 선산일대 서원에 대한 기록과 지식 그리고 일상지식」, 『민족문화논총』 7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 조남욱, 「조선조 초기 정몽주 길재 표창과 그 의의」, 『유교사상문화연구』 49, 한국유교학회, 2012.
- 조준호, 「書院志 分析을 통해 본 初期 書院의 性格-竹溪志, 迎鳳志, 吳山志를中心으로-」, 『한국학논총』 33,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 황미숙, 「조선 초기 婚姻의례 변화에 대한 고찰-세종대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40,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4.

Abstract

The Perception and Status of Gil Jae in the Joseon Dynasty

Lee, Kyung-d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in the social perception and status of Gil Jae (吉再) in the Joseon Dynasty and to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him in the times.

In the former period of Joseon, Gil Jae was evaluated as a figure that kept his loyalty and devotion to Goryeo Dynasty. Gil Jae, along with Jeong Mong-ju (鄭夢周), was symbolized by loyalty to Joseon and could establish his status generally in the society. Around the 16th century, Gil Jae could have his own status related to the succession system of universal truth learning as well as loyalty as Sarim determined the genealogy of the Korean succession system of universal truth learning. This was developed in the process that Jo Gwang-jo (趙光祖) and his followers, Sarim (士林), were attaining both political and academic legitimacy. As a result, the perception and status of Gil Jae in the early Joseon were established in two categories: loyalty and the succession system of universal truth learning.

The perception of Gil Jae in late Joseon is summarized as honoring activities for Gil Jae, evaluation on activities in his lifetime, and diverse interpretations over Gil Jae. The areas of the Seonsan (善山), Indong (仁同) and Geumsan (錦山) Region have gradually become famous as the symbols of loyalty and truth learning because they were places where Gil Jae was active during his lifetime. At the same time, criticism

was raised over the fact that Gil Jae served as a bureaucrat in late Goryeo but later refused to do that in Joseon. This started from criticizing Gil Jae's inappropriate behavior but eventually tended to strengthen his status further while intellectuals re-criticized him. In the 18th century, Gil Jae's status regarding loyalty came to be solidified at the national level as the state gave him the posthumous epithet of 'loyalty'.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lso a critical viewpoint about the evaluation of Gil Jae being just loyal, thus developing evaluation on him more diverse afterwards.

keywords :

Gil Jae(吉再), Loyalty(忠節), the Succession System of Universal Truth Learning(道統), Seonsan(善山), Indong(仁同), Geumsan(錦山), Sarim(士林)